

타린 사이먼(Taryn Simon) 작품에서 나타나는 정치와 예술의 융합 연구
- An American Index of the Hidden and Unfamiliar 작품을 중심으로 -

박 형 주 *

하 동 환 **

*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전임연구원

** 중앙대학교 예술공학대학 교수

A Convergence Study on Politics and Art Represented on Taryn Simon's Work
- Focused on An American Index of the Hidden and Unfamiliar

Park, Hyung Ju *

Har, Dong Hwan ***

* Researcher, The Graduate School of Advanced Imaging Science, Multimedia & Film,
Chung-Ang University

** Professor, College of Art & Technology, Chung-Ang University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5B5A07070690)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18S1A5B5A07070690)

** Corresponding Author : Har, Dong Hwan dhhar@cau.ac.kr

THE KOREAN SOCIETY OF SCIENCE & ART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THE KOREAN SOCIETY OF SCIENCE & ART Vol.38(2)_Regular article or full paper

* Contribution : 2019.11.19_Examination : 2019.12.11_Revision : 2020.03.13_Publication decision : 2020.03.30

www.kci.go.kr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I.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1.2 연구방법 및 범위

II. 발터 벤야민의 관점에서 본 이론적 배경

2.1 유물론적 예술이론

2.2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

III. 타린 사이먼의 프로젝트에서 나타나는 정치와 예술의 융합 연구

3.1 타린 사이먼의 「숨겨지고 낯선 미국의 지표」 프로젝트

3.2 타린 사이먼의 사진에서 나타나는 정치와 예술

3.3 타린 사이먼 사진의 융합적 아우라 분석

IV. 결론

Reference

Endnote

Abstract

This study started from the transformation of the function of art in the 「An American Index of the Hidden and Unfamiliar」 (2006) project, American documentary photographer Taryn Simon. After the Sept. 11 attacks, Simon explored and investigated some of the most political and secret places of her time, the United States. The photographer serves as a reminder to the acceptor of the work of art that he or she is unaware of in everyday life of the secret places and self-awareness of the political intention. Her interest is to capture the interaction of entropy, which is invisible by area, from government to science, from religion to security, from medicine to entertainment, and ultimately to what she wants. For this research, we tried to analyze hidden political aura of everyday functions such as American culture, science, history, politics, medicine, and entertainment that appeared in Simon's photographs. First, we discussed the medical, religious, scientific and cultural roles of the subjects in the work, scientifically, politically and aesthetically. Secondly, the project explores the aura of political and social indicators that were not found in existing photographic works and expresses them in an original and unique aesthetic way in a

systematic and scientific approach. She also realized the politicization of art against the aestheticization of the politics of Walter Benjamin and used the medium of photography to express the relationship between reality and politic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 convergence study that presents the net functional role of art in proposing the positive development direction of society. Simon hopes that history is an organism that leads to politics and art, through her photographs, to transform art into a function in a political direction. And by providing simultaneous appreciation of American social and political indicators occupied by some minorities, it encourages changes in access and function of works of art. This is ultimately to expect Entritualisierung der Kunst through the interaction between the work and the acceptor.

국문초록

본 연구는 미국의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타린 사이먼의 「숨겨지고 낯선 미국의 지표」(2006) 프로젝트에서 나타나는 예술의 기능 전환에서 시작되었다. 9.11 테러 이후 사이먼은 미국이라는 동시대의 가장 정치적이고도 비밀스러운 곳을 탐색하고 조사하였다. 작가는 예술작품의 수용자가 일상에서는 알지 못하는 비밀스럽고 숨겨진 세계와 정치적 의도에 대한 자각과 자성을 일깨우는 역할을 한다. 작가의 관심은 정부에서 과학으로, 종교에서 안보로, 의학에서 오락으로 연결되며 궁극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작업에 영역별로 보이지 않는 엔트로피가 상호 작용하는 것을 포착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이먼의 사진에서 나타나는 미국의 문화, 과학, 역사, 정치, 의학, 오락 등 일상적인 기능들의 숨겨진 정치적 아우라를 분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작가 작품에 나타난 피사체들의 의학, 종교, 과학, 문화적 역할을 과학적, 정치적, 미학적으로 논의하기를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작가의 프로젝트는 기존의 사진 작품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정치적, 사회적 지표들의 아우라를 탐구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 방식으로 독창적이며 고유한 미적 방식으로 표현하였다. 둘째, 작가는 발터 벤야민의 정치적 심미화에 맞서는 예술의 정치화를 실현하고 사진이라는 매체를 사용하여 현실과 정치와의 관계를 표현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의 긍정적 발전 방향을 제안하는 예술의 순기능적 역할을 제시하는 융합 연구이다. 작가는 역사는 정치이자 예술로 이어지는 유기체로서 자신의 사

진을 통해 예술을 정치적 방향으로 기능 전환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일부 소수에 의해서 점유되던 미국의 사회적 정치적 지표들을 대중에게 동시적으로 감상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예술작품의 접근 기회와 기능을 변화하도록 유도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궁극적으로 작품과 수용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 작용 관계를 통하여 예술의 탈의식화를 기대한다.

Key Words

Science(과학), Art(예술), Convergence(융합), Aura(아우라), Taryn Simon(타린 사이먼)

I.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20세기 다이안 아버스(Diane Arbus), 워커 에반스(Walker Evans)와 같은 유명 사진작가에 의해 표현된 불안한 미국의 문화는 그동안 미화된 낭만주의 전통이나 사실주의에 반기를 던진다. 21세기 타린 사이먼(Taryn Simon)의 사진도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을 바라보는 관점이 동일하다. 사이먼은 다큐멘터리 작업이 중심이며 계층화된 개념적 사진작가로서 「숨겨지고 낯선 미국의 지표, An American Index of the Hidden and Unfamiliar」(2006) 프로젝트를 통해서 소수의 특권적 접근 경로와 대중들의 제한된 접근의 경계를 두드린다. 작가는 사진을 통해 사회에 정치적 텍스트를 던지고 사진 속의 피사체는 정치화와 미학화의 격차에 직면한다. 이 지점에서 작가는 미국의 숨겨진 것들을 들춰내고 그들의 목적을 이해하고 그들의 위엄을 보여주하고자 한다. 실재를 기록하고 충실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진 이미지의 기록성은 매체의 가장 매력적인 특성 중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사진을 볼 때 보는 것을 믿는 “사진의 진실성”을 기대한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복제시대의 사진은 바이너리 코드(Binary Code)로 변환되어 손실 없는 완벽한 디지털 복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에서는 원본과 복제본 사이의 위계질서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무한한 재생산이 가능하다.¹⁾ 발터 벤야민은 그의 에세이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에서 복제라는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그동안 원본에만 존재하던 진품성, 일회성의 원본의 성격을 “아우라(Aura)”²⁾라고 정의하고 이것이 기술복제시대에는 붕괴된다고 말한다. 즉 인쇄, 제판, 사진 등 기술에 의해 복제되는 예술에는 원본 가치가 소멸하고 수공예 시대의 예술작품에서 드러났던 아우라가 해체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다.³⁾ 벤야민에 따

르면 대량복제가 기술적으로 가능해진 시대에 아우라의 붕괴로 “예술의 모든 사회적 기능 또한 변혁을 겪게 된다. 기존의 예술은 의식에 바탕을 두었는데 이제 예술은 다른 실천, 즉 정치에 바탕을 두게 된다”⁴⁾고 하였다. 타린 사이먼의 관심은 동시대의 가장 정치적이고 비밀스러운 곳에서부터 시작한다. 작가는 「숨겨지고 낯선 미국의 지표」(2006) 프로젝트를 위하여 미국의 일상적 기능에 필수적인 주제를 발굴하고 조사하기 위해 4년간의 세월을 투자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의 시간, 탐색의 노력, 헌신이 작가 작품 활동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9.11 테러 이후 5년간 미국의 메스컴과 정부가 대량살상무기를 찾아 미국 밖에 있는 알려지지 않은 곳들을 뒤지고 있을 때, 작가는 미국의 문화, 역사, 기초, 신화, 일상적인 기능의 핵심적인 것들의 내부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미국과 세계의 역사가 연결되는 핵심 고리를 보고 싶었다. 특권층과 일반 대중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 작가의 프로젝트는 미국의 내부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지표들의 목록이다. 과학, 정부, 의학, 오락, 자연, 보안, 종교의 영역에서 작가가 선택한 피사체들은 비교적 일반에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는 것들이다.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사진들은 분류 체계를 따르거나 아카이브화된 사진들이 아닌 각각의 히스토리를 가진 일종의 타임캡슐이다. 작가의 사진은 밝고, 초현실주의적이며 고화질의 명료함으로 표현된다. 미국의 숨겨지고 익숙하지 않은 장소들을 섭외하고 사진으로 나타내어 숨겨진 세계에 일종의 지위를 부여한다. 즉 예술작품의 수용자에게 일상에서는 알지 못하는 비밀스럽고 숨겨진 장소들의 정치적 의도와 연결된 세계에 대한 자각과 자성을 일깨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타린 사이먼의 「숨겨지고 낯선 미국의 지표」(2006) 예술작품에서 나타나는 미국의 문화, 과학, 역사 등, 일상적인 기능들의 숨겨진 정치적 아우라를 분석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였던 피사체들의 정치적, 문화적, 과학적 역할을 미학적으로 분석하여 논의하고 더 나아가 사회의 발전 방향을 제안하는 예술의 순기능적 역할을 제시하는 융합 연구이다. 또한, 작가의 프로젝트는 이미지와 텍스트로 표현되고 주제는 정치에 관련되어있지만 어떤 특정한 비판이나 의제는 제한하여 표현하였다. 타린 사이먼의 사진은 예술을 정치적 방향으로 기능 전환하며 작품과 수용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 관계를 통하여 예술의 탈의식화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과거 소수에 의해서 점유되던 미국의 지표들을 대중에게 동시적으로 감상할 수 있도록 제

공하여 예술작품의 접근 기회와 기능을 변화하도록 하였다.

1.2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21세기의 미국의 다큐멘터리 개념 사진작가 타린 사이먼의 사진예술에서 나타나는 미국의 정치적, 사회적 지표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숨겨지고 낯선 미국의 지표」(2006) 작품의 주제는 미국의 정치적, 사회적 목적에 의한 지표들이 일상에 어떻게 침투하였는지를 파헤치는 것이다. 사이먼의 프로젝트는 기존의 사진 작품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일상적 기능의 피사체들의 아우라를 탐구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 방식으로 독창적이며 고유한 미학 방식으로 표현한다. 작가는 주제를 발굴하고 조사, 탐색하기 위해 4년간의 세월을 투자하였고 이러한 연구의 시간이 활동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소수의 특권적 접근과 대중의 제한된 접근에 직면하고 그 차이를 연구하는데 보통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리고 대형 카메라 사진 촬영과 그에 수반되는 텍스트 작업이 이어진다. 작가의 작업은 형식주의에 매우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정치적, 윤리적, 종교적으로 새로운 미국의 풍경을 발견하는 탐구 요소가 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작가는 한 시민으로서 얼마나 깊게 미국의 전문적이고 비밀스러우며 낯선 곳에 접근할 수 있는지 또한 전문가와 대중의 접근 경로가 어느 정도 지식의 차이에 직면하는지를 사진이란 매체를 통하여 나타낸다. 작가의 사진은 강렬한 정물화처럼 혹은 초현실주의적인 개념사진으로 표현된다. 피사체에 접근하는 방식은 작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있는 그대로 무보정의 촬영을 추구한다. 이와 같은 연구를 위하여 먼저 타린 사이먼의 미학적 배경 분석을 위한 발터 벤야민의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에서 나타난 유물론적 예술이론에 기반을 두어 사진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본다. 벤야민은 현대미술의 예술성을 '미적 진보', 혹은 '시각적 무의식의 세계'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특성이 가장 잘 나타나는 매체가 사진이며 “우리는 정신분석학을 통하여 충동의 무의식적 세계를 알게 된 것처럼 카메라를 통하여 비로소 시각적 무의식(das Optisch-Unbewußte)⁵⁾의 세계를 알게 된다”⁶⁾고 하였다. 타린 사이먼의 「숨겨지고 낯선 미국의 지표」(2006) 프로젝트의 대표적인 일곱 작품(배심원 심의실, 냉동보존장치, 미국 핵폐기물 시설, 미국 세관 및 국경 보호 밀수실, 대서양 횡단 해저 케이블, 미국 중앙 정보국, 하얀 호랑이)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과학적, 사회적 의미를 벤야민의 아우라를 통해 미적

으로 분석하고 이론에 융합하여 서술하고 분석의 결과를 도표화한다. 작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텍스트와 관련된 이미지 사이의 보이지 않는 공간”과 “어떻게 이미지가 텍스트에 의해서, 또는 텍스트가 어떻게 이미지에 의해서 영향을 주는가”이다. 두 가지는 대립할 수 있지만, 작가의 작품은 보통 텍스트와 이미지가 동시에 큰 부분을 차지한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를 통해 대중이 예술작품에 접근할 기회를 확대하고 예술의 기능도 변화하기를 기대한다.

II. 발터 벤야민의 관점에서 본 이론적 배경

2.1 유물론적 예술이론

발터 벤야민의 에세이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⁷⁾이 작성되었던 1935년은 나치당이 1932년 총선에서 의회 제 1당으로 자리매김한 이후 독일의 파시즘이 유럽에서 강력한 세력을 확장하고 있던 시기였다. 벤야민은 대중이 파시즘에 대항하는 길을 대중이 가진 정치적 운동의 가능성과 예술을 정치적 방향으로 기능을 전환하는 방법에서 찾으려고 하였다. 또한 파시즘의 정치적 프로파간다를 대중을 끌어들이기 위해 폭력을 매력적으로 포장하며 “정치적 삶의 심미화(eine Ästhetisierung des politischen Lebens)”⁸⁾로 연결된다. 정치적 삶의 심미화가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곳은 전쟁이며, 벤야민의 관점에서 대중은 사회 참여 능력과 정치적 변화에 대한 힘을 파시즘의 계략에 의해 전쟁이라는 폭력으로 표현한다. 대중은 전쟁 속에서 자신을 표현하도록 조직되며 전쟁이 아름답다고 선전하는 선동가의 말처럼 파시즘은 전쟁을 아름답게 꾸미며 정치를 심미화한다.⁹⁾ 벤야민은 이것에 대해 “예술의 정치화(die Politisierung der Kunst)”¹⁰⁾로 맞서야 한다고 내세운다. 예술작품의 기술 복제로 인해, 그것이 제례의 예술을 제례적 근원에 비추어 규정하며 전통적 예술작품의 성격을 아우라라는 개념으로 정의했다. 이처럼 벤야민은 역사와 정치가 겹쳐지는 지점에서 예술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그는 역사와 정치 그리고 예술은 뗄 수 없는 유기체라고 주장하였다. 벤야민은 예술의 기능 전환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하였으며, “예술 생산에서 진품성을 판가름하는 척도가 그 효력을 잃게 되는 바로 그 순간, 예술의 모든 사회적 기능 또한 변혁을 겪게 된다고 하고 예술이 의식에 바탕을 두었었는데, 이제 예술은 다른 실천, 즉 정치에 바탕을 두게 된다”라고 하였다. 즉 벤야민은 “정치의 심미화”에 맞서는 “예술의 정치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매체와 정치와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에세이에서 벤야민은 기술의 발달로 탄생한 새로운 예술로 인하여 예술의 존재론적 가치가 변화하고 있다고 하였다. 즉 기술복제에 의해 이러한 예술작품의 진품성은 파괴되며, 그 결과 예술은 제례적 또는 의식적 기능을 벗어나 정치적 기능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벤야민은 ‘창조성, 천재성, 그리고 영원한 가치와 신비’ 등과 같은 전통적 개념들과는 다른 새로운 개념들을 예술이론에 도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예술적 논의의 출발점은 복제라는 개념이다. 그는 “예술작품은 원칙적으로 항상 복제가 가능하며, …(중략)… 회화 복제 과정에서 사진은 지금까지 손이 닿지 않았던 가장 중요한 예술적 기능을 해방시켜주었고, 대신에 렌즈를 주시하는 눈이 그 기능을 담당하게 되고 눈은 손으로 그릴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빨리 사물을 인지하기 때문에 회화적 복제 과정은 엄청나게 가속화 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예술작품의 기술적인 복제는 예술에 대한 대중의 태도를 변화시켜 예술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것이다.

2.2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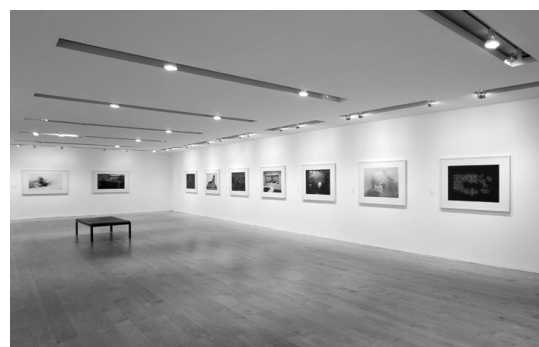
벤야민은 유물론적 예술이론으로 알려진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에서 아우라의 개념을 “공간과 시간으로 짜인 특이한 직물로서, 아무리 가까이 있더라도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것의 일회적 현상이다”¹¹⁾라고 규정하였다. 여기에서 벤야민은 예술작품과 수용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관계를 아우라의 개념으로 분석한다. 그는 이처럼 복제가 일어나는 가운데 예술작품의 일회적 현상인 아우라가 기술복제시대에는 위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아우라는 예술작품에서 개성을 구성하는 계기로 예술작품이 지닌 아주 미묘하고도 개성적이며 고유한 본질 같은 것을 의미하고 있다. 예술작품이 품기는 고요한 분위기는 이 아우라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이러한 개성적이고도 근접하기 어려운 분위기 때문에 자율적 존재로서의 예술작품이 가능한 것이다”¹²⁾고 하였다. 그러나 사회의 기술적 발전에 따라 예술작품을 복제하는 기술이 정교해지고 그 예술작품의 복제된 이미지들이 대량으로 유통되면서, 예술작품이 가졌던 진품성과 유일무이성이라는 물질적 조건 그리고 예술작품과 수용자 사이의 긴밀한 관계가 무너지게 된다. 이에 따라 예술작품은 제의가치에서 해방되고 예술작품의 아우라는 붕괴된다.

벤야민에 의하면 기술복제시대에는 바로 이러한 아우라의 파괴 현상이 일어난다. 그는 이것을 “아우라의 붕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에서 “기술적

복제 가능성의 시대에 위축되는 것, 이것이 예술작품의 아우라”라고 말하는 것이다. 벤야민에 있어서 이러한 “아우라의 붕괴”는 또한 “예술의 탈의식화”를 의미한다. 이것은 예술작품에서 아우라의 껍질을 깨는 것과 같다. 기술복제시대에 아우라의 붕괴는 예술작품을 둘러싼 여러 상황에 변화를 가져왔다. 예술의 수용방식이 개인적 방식에서 대중적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다. 과거 소수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감상되었던 예술작품을 이제는 대중이 동시에 감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은 예술작품에 접근할 기회의 확대를 의미하고 이로써 예술의 기능도 변화하게 된다. 벤야민은 특히 이러한 기술복제 시대에 사진(Photographie)과 영화(Film)가 예술작품에 가져온 새로운 질적 변화를 기술하기 위해 이미 「사진의 작은 역사」에서 제시했던 아우라의 붕괴라는 명제를 끌어들이면서 이것을 예술의 역사 전체로 확장시켰다. 기술복제시대에 제의 가치라는 사회적 기능과 아우라적 존재방식을 상실해버린 예술작품에 대해 벤야민은 정치적 방향으로 예술의 기능 전환을 제시한다. 이러한 유물론적 예술이론에서 벤야민은 아우라를 제도화된 수용 방식이라고 비판하면서 그것을 처음으로 역사화한 것이다.¹³⁾ 그리고 역사와 정치, 그리고 예술은 하나의 유기체이며 대중은 예술의 정치화로 예술의 기능을 전환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III. 타린 사이먼의 프로젝트에서 나타나는 정치와 예술의 융합 연구

3.1 타린 사이먼의 「숨겨지고 낯선 미국의 지표」 프로젝트



<그림-01> 「숨겨지고 낯선 미국의 지표」 전시, 휘트니 미술관, 뉴욕, 2007

타린 사이먼(1975년~현재)은 사진, 텍스트, 조각 및 공연 분야에서 작업하는 미국의 종합 예술가이다. 작

가는 브라운 대학에서 환경 과학을 전공한 후, 1997년 로드아일랜드 디자인 학교에서 사진으로 학위를 받았다. 2001년 구겐하임 펠로우로 선정되었으며, 영구 컬렉션으로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테이트 모던 런던, 뉴욕 구겐하임 박물관, 파리 조지蓬피두 센터, 로스 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 등이 있으며, 2006년 ICP Infinity Award를 수상하였고 제56회 베니스 비엔날레(2015)에 출품하였다. 작가는 미국인으로서 과학, 정부, 의학, 오락, 자연, 안보 및 종교의 영역에 걸쳐서 미국의 강박적인 문서화 및 분류화를 통하여 표현하는 사고방식과 문화를 조사한다. 이러한 주제 탐색의 시간은 작가에게 혼란스러우면서도 정치적, 윤리적, 종교적으로 새로운 의미로서 미국의 풍경을 발견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 작가가 「숨겨지고 낯선 미국의 지표」(2006) 프로젝트(<그림-01> 참조)를 구상하고 실행하게 된 동기는 9.11 테러로 인한 국가 정체성의 위기 속에서 국가 간의 경쟁적으로 개발 중인 대량살상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의 소문과 이라크 테러 조직의 비밀 장소들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한다. 작가는 자신의 개인적 한계를 주의하면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하여 비밀스럽게 존재하고 있는 미국 국경 안에 숨겨진 장소와 사물들을 조사하고 촬영하였다. 이 프로젝트를 위하여 사이먼은 4년간 대형 카메라를 가지고 일반인들에게는 금지된 구역으로 접근하였다. 외부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미국의 여러 장소들, 예를 들어 핵폐기물 보관소, 법의학 연구소의 재구성된 범죄 현장, 합법적 대마초 재배실, 미국 중앙 정보국 로비,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하얀 호랑이, 사이언톨로지교의 내부,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의 세관 압수실, 냉동 인간 보존 장치, 해저 통신 케이블 등을 촬영하였다.

사진 역사학자 제프리 바첸(Geoffrey Batchen)은 작가의 프로젝트를 “억압된 장소에 대한 강박적 문서화를 통해 표현된 미국 정신의 민족지학”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이러한 사진들에 관한 구체적 연구를 통해 작가가 가장 강력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한계를 벗어난 이 땅이 얼마나 복잡하고 체계적인가 그리고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 것에 대해 얼마나 양심적일 수 있는가이다. 살만 루시디(Salman Rushdie)는 “많은 사람이 대중으로부터 진실을 감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역사적 시기에 민주주의에는 가시성과 책임감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숨겨진 세계를 작품으로 가시화하고 이로써 정치적 역할을 하는 작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IMA(Institute of Modern Art) 로버트 레너드(Robert Leonard) 이사는 “이 작업은 내가 본 것 중, 가장 강력한 사진 프로젝트 중 하

나이다. 이미지에서 이미지로, 텍스트에서 텍스트로 이동할 때, 사이먼은 그림자 세계의 미국에 대한 심도 깊은 정보를 제공한다. 그것은 작가가 현명한 정치의제 없이 다양한 주제를 실제적인 방식으로 다룸으로써 지금의 명성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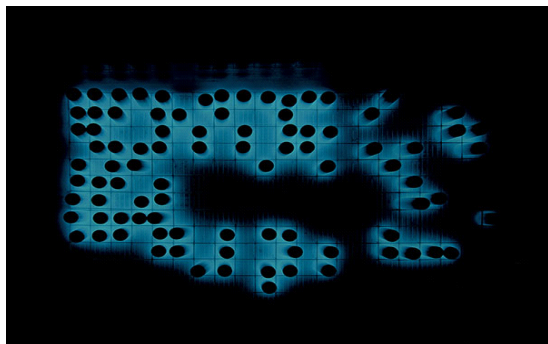
3.2 타린 사이먼의 사진에서 나타나는 정치와 예술

타린 사이먼은 “나는 영화나 과학 잡지에서 경험했던 것들로부터 아이디어를 얻는다”고 하였다. 작가는 대상의 분류화 및 분류 시스템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미국을 구성하고 있는 숨겨지거나 생소한 지표들에 대해 깊이 있게 연구한다. 또한 그는 “공공에게 허용된 접근과 전문가들에게만 허용된 접근의 차이에 직면하고 싶다”고 하였다. 즉 소수의 특권적 접근과 대중들의 제한된 접근에 직면하고 그 차이를 연구하는데 보통 1년 이상의 시간을 사진 촬영과 그에 수반되는 텍스트 작업에 투자한다. 작가의 작업은 형식주의에 매우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정치적, 윤리적, 종교적으로 새로운 미국의 풍경을 발견하는 탐구 요소가 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작가는 한 시민으로서 얼마나 깊게 미국의 전문적이고 비밀스러우며 낯선 곳에 접근할 수 있는지 또한 전문가와 대중의 접근 경로가 어느 정도 지식의 차이에 직면하는지를 사진이란 매체를 통하여 강렬한 정물화처럼 혹은 초현실주의적인 개념사진으로 표현하였다. 「숨겨지고 낯선 미국의 지표」(2006) 프로젝트는 휘트니 미국 미술관(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에서 처음으로 전시되었다. 전시 서문에서 사이먼은 “역사상 우리의 순간을 이해하는 주요 예술가 중 한 사람”이라고 소개되었다. 프로젝트에 포함된 40여점이 넘는 작품들 중에서 본 연구는 가장 대표적이고 의미 있는 일곱 작품에 대하여 과학과 예술의 융합적인 아우라를 분석하고자 한다.

(1) 미국 핵폐기물 시설

미국 남동부 위싱턴주 체렌코프 헨포드의 방사선 부지에는 물이 가득한 수영장에 세슘과 스트론튬을 포함하는 1,936개의 스테인리스 스틸 핵폐기물 캡슐이 보관되어 있다. 이곳에는 미국 내 통산 일억 이천만 건 이상의 방사능이 함유되어 있다. 미국에서 가장 오염된 곳 중의 하나인 헨포드의 시설은 586제곱마일의 거대한 플루토늄 생산 단지이다. 이것은 맨해튼 프로젝트, 최초의 핵무기를 개발한 미국 주도의 세계 대전 을 방어하기 위하여 지어졌다. 헨포드에서 생산된 플루토늄은 1945년 나가사키에서 떨어진 원자 폭탄에

사용되었다. 이후 수십 년 동안 햄포드는 폭탄에 사용할 핵 재료를 제조하였다. 여기에는 5,300만 갤런의 방사성 및 화학적으로 위험한 액체 폐기물, 2,300톤의 사용된 핵연료, 18톤의 플루토늄 함유 물질 및 약 80 제곱마일의 오염된 지하수가 있다.



<그림-02> 미국 핵폐기물 캡슐화 및 저장 시설, 남동부 워싱턴주 체렌코프 방사선 햄포드 부지, 「숨겨지고 낯선 미국의 지표」 (2006)

위 <그림-02>의 청색 빛은 체렌코프효과(Cherenkov Effect) 또는 방사선에 의해 생성된다. 체렌코프 효과는 하전 입자의 에너지를 주는 투명 매체를 통해 빛보다 빠르게 움직일 때 방출되는 전자기 방사선을 의미한다. 캡슐 온도가 화씨 330도에 이르며 수영장은 방사선에 대한 보호막 역할을 한다. 차폐되지 않은 캡슐에서 약 30cm 떨어진 곳에 서있는 사람은 10초 이내에 치사량의 방사선을 받아 즉사할 수 있다. 이러한 치명적으로 위험하고 비밀스러운 장소에 사이먼은 생사의 위협을 받으며 사진을 촬영하였다. 사이먼의 카메라에 포착된 장면은 90개의 스테인리스 스틸 캡슐이 물웅덩이에 잠겨있는 상태로 방사성 세슘과 스트론튬을 함유하고 있었다. 그 결과로 파란색 방사선이 위에서 사진을 찍었을 마치 미국의 지도처럼 나타났다. 핵폐기물이 내뿜는 푸른빛의 아우라는 벤야민이 언급하였던 전쟁을 통한 정치적 삶의 심미화 과정에 나타나는 프로파간다이며 이러한 정치적 유물은 대중이 예술의 정치화로 대응해야하는 것이다. 작가는 미국의 지도처럼 배치된 핵폐기물 캡슐들을 하나의 예술로 승화시켰다. 작가가 방사능 피폭의 위험을 무릅쓰고 촬영을 감행한 결과로 핵폐기물이 미국 지도의 이미지를 떠올릴 만큼 강력하게 표현되는 이 사진은 비평가들로부터 천 마디의 말보다 한 장의 사진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였다.

(2) 미국 세관 및 국경 보호 밀수실

미국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의 미국 세관 및 국경

보호 밀수실에는 아래의 <그림-03>에서 보는 것과 같은 구더기, 아프리카 양, 안테스 감자, 방글라데시 조롱박, 고깃덩어리, 체리, 카레 잎, 말린 오렌지 껍질, 신선한 계란, 거대한 아프리카 달팽이, 임팔라 두개골 모자, 잭 프루트 씨앗, 6월 매실, 건과류, 망고, 아욱, 패션 프루츠, 돼지 코, 돼지 입, 돼지고기, 생 가금류, 남미 돼지, 머리, 남미 토마토 나무, 감귤류, 남아시아 라임, 사탕수수, 생고기, 흠이 묻은 미확인 아열대 식물 등이 발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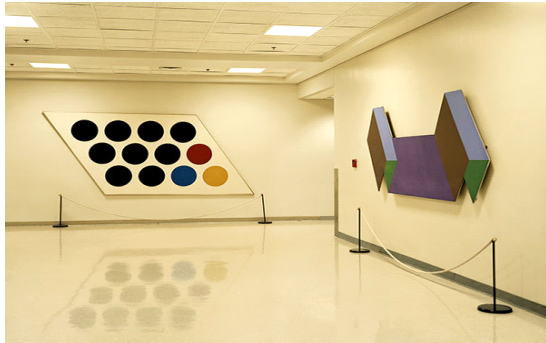
<그림-03> 미국 세관 및 국경 보호 밀수실, 존 F. 케네디 국제공항, 뉴욕, 「숨겨지고 낯선 미국의 지표」 (2006)

사진의 모든 항목은 사이먼이 촬영을 허가받고 48 시간 동안 해외에서 터미널 4로 미국에 도착한 승객의 수하물에서 압수된 것들이다.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은 미국 내 공항에서 가장 많은 국제선 승객을 처리한다. 금지된 농산물은 미국 농작물, 가축, 애완동물, 환경 및 경제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외국 동물, 식물, 해충 및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것들로 승객은 국가에 입국하기 전에 과일, 채소, 식물, 씨앗, 고기, 새 또는 동물 제품을 신고해야 한다. 세관의 해당 농업 전문가들은 승객의 품목이 미국 입국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미국은 구제역 및 조류 인플루엔자와 같은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동물과 식물에 대한 허가가 필요하고 현장에서 압수된 품목은 모두 식별하여 해부한 후 분쇄하거나 소각한다.

작가는 미국 세관 밀수실의 장면을 일종의 정물화처럼 재현하고 싶어 했으며 오랜 시간을 여러 종류의 냄새와 물건들 사이에서 보냈다고 한다. 작가가 원하는 대로 조명을 설치할 수 없었던 촬영장소에서 작가는 의도대로 피사체의 낯선 디테일과 다양한 색감을 정물화처럼 세밀하게 표현하였다. 대형 카메라를 사용하여 한정된 공간 내에서 카메라 렌즈로부터 발생하는 수직과 수평 왜곡이 절제되어 표현되었다. 미국 공항 내 소수의 관계자만이 담당하는 은밀한 장소를 대중들이 접할 수 있도록 작가는 사진으로 복제하여 예

술작품으로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작가는 대중에게 금지된 장소들에 접근할 기회를 확대하고 예술작품 수용자들의 인식의 변화를 유도하였다.

(3) 미국 중앙 정보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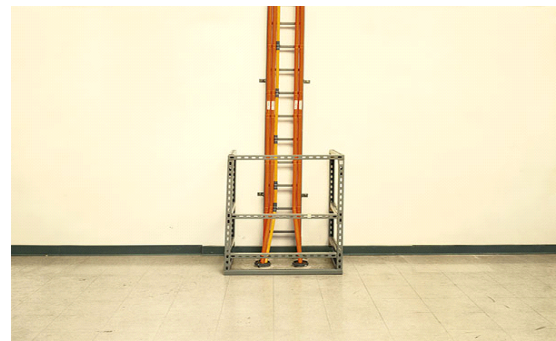
<그림-04> 미국 중앙 정보국, 헤드쿼터빌딩, 버지니아, 「숨겨지고 낯선 미국의 지표」 (2006)

미국 버지니아 랭글리에 있는 미국 중앙 정보국(CIA, Central Intelligence Agency)의 내부에는 저명한 작가들의 미술품들이 걸려있다. 사이먼은 미국 중앙 정보국이 오랫동안 비밀스럽게 유지해온 하나의 문화, 즉 예술에 대한 그들의 관심, 미학을 활성화하도록 계획되었다는 추측들을 확인하고 싶었다. 이는 벤야민의 정치적 심미화가 어떻게 한 시대의 예술로 자리 잡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이러한 예술에 관한 관심은 과거 소련 공산주의에 대항하고 친미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사상이나 미학들의 수준 높은 관심을 선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 중앙 정보국의 미술위원회는 기관의 건물에 전시할 예술작품을 선정하며, 위원회에서 선별된 예술작품 중에는 빈센트 멜작(Vincent Melzac)과 토마스 다우닝(Thomas Downing)의 두 작품이 있다(<그림-04> 참조). 빈센트 멜작은 워싱턴 D.C. 최고의 미술관인 코르코란 미술관(Corcoran Gallery of Art)의 행정 책임자이자, 추상 미술품의 개인 수집가이다. 멜작의 미국 중앙 정보국에 대한 수많은 공헌 가운데는 마크 멜런(Marc Mellon)이 조각한 헤드쿼터 빌딩에 위치한 조지 부시(George H.W. Bush) 대통령의 청동 흉상이 있다. 토마스 다우닝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화가들로 구성된 워싱턴 컬러 학교(Washington Color School)의 일원으로 예술과 문화의 중심지로 도시를 설립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1947년 미국 중앙 정보국이 창립된 이래, 이 기구는 전 세계 비밀스러운 것들의 은신처인 동시에 공공의 외교 문화에 참여해왔다. 예술에 대한 미국 중앙 정보

국의 참여는 미국인의 사고와 미학적 감수성을 대중 화함으로써 소련 공산주의에 대항하기 위해 고안된 “문화전쟁”으로 표현된다. 이들의 목표는 소련의 미술과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미국의 미술, 더 나아가 세계의 미술로 발전시켜 미국의 사상적, 문화적 우위를 각인시키는 것이었다. 소련이 리얼리즘과 구상주의에 영향을 받은 미술이 유행이었다면 반면에 미국은 개인주의적이고 추상적인 미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그들의 문화적 참여에 대해 정교하게 문서화된 사례 중 하나는 1967년 미국 중앙 정보국의 기금이 문화적 자유를 위한 회의(CCF, Congress for Cultural Freedom)를 매개로 하여 미국과 유럽의 지식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카운터 매거진(Encounter Magazine)을 통해 제공된 것이다. 1950년에 설립된 문화적 자유를 위한 회의는 수많은 저널, 서양 지식인 회의, 미술 전시회 및 서적을 후원했다. 역사는 정치이자 예술로 이어지는 유기체적 양상을 보였던 과거 냉전 시대 초현실주의 사조의 유행은 예술을 정치적 방향으로 기능 전환 시킨 미국의 실제 사례로 작가의 중요한 관심을 이끌어냈다.

(4) 대서양 횡단 해저 케이블



<그림-05> 대서양 횡단 해저 케이블, VSNL International, 뉴저지, 「숨겨지고 낯선 미국의 지표」 (2006)

위 <그림-05>의 VSNL 해저 통신 케이블은 대서양 전역으로 4,029마일을 연결한다. 육천만 건이 넘는 음성 대화를 동시에 전송할 수 있으며, 수중 광섬유 케이블은 영국의 손튼 샌즈(Saunton Sands)에서 뉴저지 해안까지 이어진다. 케이블은 지면 아래로 연결되어 VSNL International 본사로 직접 연결되고 신호가 증폭되어 대서양 횡단 전화 통화 및 인터넷 전송을 가능하게 하는 고유한 파장으로 분리된다. 수중 광섬유 케이블은 특별히 설계된 선박에 의해 해저를 따라 배치된다. 케이블은 해안에 접근하면서부터 해저 산사태, 해양 생물, 특히 상어 및 낚시 장비로부터 보호하

기 위해 매장되어 있다. 어부들은 국제 통신 서비스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케이블 위치에 대해 안내를 받는다. VSNL은 미국 대륙에 연결된 14개의 해저 케이블 시스템 중 하나를 운영한다. 미국에서부터 시작되는 해저 케이블은 대서양 전역의 방송 및 전송에 사용되며 2005년 당시 남극 대륙을 제외한 전 세계 모든 대륙을 연결한다.

사이먼의 시선으로 본 해저 케이블은 30~40년은 지난 것처럼 보였으며 마치 과거 냉전시대에 갇혀 있는 진보하지 못한 유물의 아우라처럼 느껴졌다. 한 번의 가위질로 대륙을 연결하는 모든 대화를 단절시킬 수도 있는 위험한 형태를 한 대서양 횡단 해저 케이블을 대중에게는 감춰진 곳, 아마도 아우라가 붕괴된 모습으로 단조롭고 전혀 중요하지 않은 모습으로 표현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미국 소수의 관계자들만이 연관되어 있었던 과학 통신 분야의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해저 케이블은 작가의 사진을 통하여 복제되어 일반에게 알려지고 아우라의 붕괴를 야기하며 이로써 예술작품 접근의 기회는 동시대 일반 대중에게 전달되고 확대되는 것이다.

(5) 하얀 호랑이



<그림-06> 하얀 호랑이(케니), 티펜타인 크릭 야생동물 피난처와 유레카 스프링스 재단, 아칸소, 「숨겨지고 낯선 미국의 지표」(2006)

전통적으로 하얀 호랑이는 아시아의 자연 서식지에서 극히 드물며 선택적 근친 교배의 결과물이다. 엄마와 아들을 교배시키기도 하고, 아빠와 딸, 남매간의 교배도 한다. 하얀 호랑이의 조건이란 하얀 털, 얼음처럼 푸른 눈, 온화한 코 같은 것들이며 일반적으로 태어나 자마자 살처분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미국에 살아있는 모든 하얀 호랑이는 백색 모피, 얼음처럼 파란 눈 및 분홍색 코로 이끄는 유전적 조건을 인위적으로 생성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교배된 인위적 결과이다. 그 결과는 한번에 25% 미만인 하얀 호랑이를 낳는데, 그 중

에 약 3%만이 품질 좋은 하얀 호랑이로 간주된다. 위 <그림-06>의 케니는 1999년 2월 3일 아칸소주 벤턴 빌에서 태어났다. 케니와 같이 태어난 다른 세 마리의 호랑이는 노란색의 십자형 눈을 갖고 있어 품질 좋은 하얀 호랑이라고 여겨지지 않는다. 근친 교사의 결과로 케니는 정신 지체와 상당한 신체적 한계가 있었다. 깊은 코 때문에 턱을 숨 쉬고 닫는데 어려워 치아가 심하게 변형되었으며 팔뚝의 비정상적인 뼈구조로 절름발이이다.

보존 전문가들은 하얀 호랑이가 희귀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이라고 인식하지 않는다. 그들은 사육사와 동물원이 미화 욕만 달리 이상에 품질 좋은 백호를 판매한 사례를 인용하며 동물원 및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행위에서 금전적 이익을 위해 하얀 호랑이를 번식했다고 밝혔다. 계속되는 근친 교배와 번식으로 인한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로 낙태, 사산, 영아 사망률이 높아지자 정부는 종 생존 계획을 제정하고 실행하여 최근 몇 년 동안 하얀 호랑이의 시장 가치는 크게 떨어졌다. 이와 같은 일반에게 알려지지 않은 오락 산업의 비윤리적 행태에 사이먼의 사진은 좁은 사육장 안에 박제된 동물처럼 케니를 보여준다. 미국의 건국이념은 청교도주의로 종교적으로 양심의 순결을 존중하고 성서를 따른다. 인간들의 비도덕적 사업화의 결과로 인해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동물들을 확대하고 오로지 돈벌이 수단으로 착취하는 현실을 작가는 관객으로 하여금 각성하도록 유도한다. 이러한 작품을 통해 작가는 일반에게 알려지지 않은 세계를 가시화하고 대중에게 도덕적이며 정치적 올바른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다.

(6) 냉동보존장치



<그림-07> 냉동보존장치, 크라이오닉스 인스티튜트 미시간주, 「숨겨지고 낯선 미국의 지표」(2006)

하얀 무채색의 차가운 아우라를 내뿜고 있는 냉동보존장치(Cryopreservation)는 냉동보존술(Cryonics)¹⁴⁾

의 개척자이자 선구자인 로버트 에팅어(Robert Ettinger)의 어머니, 엘라인 에팅어(Elaine Ettinger)와 아내인 리아 에팅어(Rhea Ettinger)의 시체를 보존하고 있다(<그림-07>참조). 불멸을 희망하는 인간의 욕구에 의해 과학 기술의 진보는 냉동보존장치를 개발하고 냉동 인간을 보존하게 하였다. 이러한 보존 기술에는 정해진 기한에 따라 미화 삼만 오천 달러가 소요되며, 추가 비용을 지불하면 이러한 상태를 무기한으로 유지할 수 있다. 장소는 미시간 주의 크라이오닉스 인스티튜트(Cryonics Institute)이며 이곳은 비영리, 회원 운영의 법인으로 개인 및 애완동물에게 시체 냉동 보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개인 및 애완동물이 법적으로 사망 시, 신속하게 얼음 예방 물질을 주입하고 물리적 붕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체의 온도를 냉각시킨다. 2005년 당시 냉동 보존 연구소는 법적으로 사망한 74명의 인간 환자와 44구의 애완동물을 보존하고 있었다. 보존에 필요한 비용은 사전에 계획하고 지불해야 되며 미화 이만 팔천 달러에서 삼만 오천 달러의 비용이 소요된다. 이 연구소가 설립된 1976년 이후 보존에 필요한 비용은 증가하지 않았으며 미시간 주에 공식 묘지로 허가되어 있다. 이 기술은 궁극적으로 과학 기술, 의학의 미래 발전을 통해 연장될 수 있으며 만약 미래에 신체적 부활이 가능할 경우, 보존된 회원은 건강하게 질병이나 노화 과정 없이 연장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소수 관계자 및 재력가에게 알려진 과학적 생명 연장 장치가 있는 곳은 미국 내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장소이다. 그들은 내부 네트워크를 통하여 운영되며 일반에게는 이러한 진보된 과학과 의학의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 작가는 이러한 경제적, 지적 특권을 가진 계층에 대해 탐색하고 그 이미지를 대중에게 유통시킴으로써 예술이 가진 기능을 확장시킨다.

(7) 배심원 심의실



<그림-08> 배심원 시물레이션, 양방향 미러, DOAR 소송 컨설팅을 갖춘 심의실, 뉴욕주, 「숨겨지고 낯선 미국의 지표」 (2006)








배심원 심의실이라는 뉴욕주의 낯선 장소는 심사위원 협의회 이사인 데이비드 클라인(David Klein), 그리고 심사위원 컨설팅의 부사장인 제임스 돕슨(James Dobson)에 의해 모의재판 모니터링 및 효과적인 시험 전략을 개발하는 곳이다. 그들은 고객에게 재판 절차와 배심원 심의를 사전에 모의 분석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이먼은 <그림-08>에서처럼 단순한 미니멀리즘한 선과 색상, 곡선대 곡선의 공간 배치, 거울을 통해 비쳐 보이는 인물들의 비밀스러운 모습들을 작가적 개입 없이 담담하게 표현한다. 배심원들이 배치된 방 너머로 전문 자문가들이 특수 거울을 통하여 그들을 바라보면서 해당 사건 판단에 대한 성향, 예측 결과 등을 분석할 수 있고 모의재판의 진행이 끝난 후에 고객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재판 전략을 어떻게 수정할지에 대해 결정한다. 단일 배심원 시물레이션의 예상 비용은 미화 육만 달러이다. 모의 배심원은 소송 컨설팅의 중요한 부분으로 해당 연간 이익이 약 삼십억 달러 이상으로 일반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전문 분야이다. 시물레이션에 표집되는 배심원은 실제 사건의 재판이 열릴 관할 구역의 배심원 자격이 있는 개인이다. 그들은 그 관할 구역 인구의 사회적, 통계학적 배경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모집되고 하루에 미화 백오 십에서 오백달러가 지불되며 모든 당사자는 기밀 유지 계약에 서명한다. 배심원 시물레이션은 변호사에게 사례 발표를 연습하고 성과를 평가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경제적 비용이 문제가 되지 않는 재벌이나 소수 권력자들에게 매우 높은 관심사이다. 실제로 최근 DOAR 소송 컨설팅은 세계무역센터(World Trade Center) 관련 보험 소송 및 월드컴 회사(WorldCom Underwriters) 소송에 관련된 당사자에게 소송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했다. 재판 준비에 소송 컨설팅의 참여는 재판의 결과가 자신의 지불 능력에 점점 더 의존 할 것이라고 다수의 비평가들이 우려하고 있다. 소수의 재력가들과 거대 기업의 재벌들은 자본을 무기로 법률적으로 유리한 판결을 유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작가는 사진을 통하여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다.

3.3 타린 사이먼 사진의 융합적 아우라 분석

발터 벤야민이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에서 그동안 수공예 복제시대 원본에만 존재하던 진품성, 일회성을 아우라라고 정의하였다. 그러나 기술복제시대에 특히 사진에서 이러한 아우라는 복제의 문제를 제기시키며 붕괴된다. 진품과 유사품의 관계는 디지털 시대의 복제로 경계가 해체되며 다양한 매체를 통한 표현방식의 변화는 새로운 의미의 예술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타린 사이먼의 「숨겨지고 낯선 미국의 지표」 (2006) 프

로젝트를 주목하였다. 현재 미국이라는 동시대의 가장 정치적이고 비밀스러운 곳에 작가는 9.11 테러 이후 미국의 문화, 역사, 기초, 신화, 일상적 기능에 필수적인 주제를 발굴하고 조사하였다. 작가의 관심은 정부에서 과학으로, 종교에서 안보로, 의학에서 오락으로 연결되며 궁극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작업에는 영역별 보이지 않는 엔트로피가 상호 작용하는 것을 포착하는 것이다. 작가의 프로젝트는 미국인의 일상에 근간하는 사고방식과 문화를 표현하는 정치적, 윤리적, 종교적으로 새로운 미국의 풍경을 발견할 방법이다. 다음 [표-01]은 타린 사이먼의 작품에 나타나는 융합적 아우라 분석 도표이다.

[표-01] 타린 사이먼의 「숨겨지고 낯선 미국의 지표」에 나타나는 융합적 아우라 분석

번호	이미지	특징
①		콘텐츠 국제+과학+정치, 미국 핵폐기물 캡슐 및 저장 시설
	표현방식 디지털 이미지, 무보정	
	표현특성 핵폐기물의 푸른빛, 미국 지도 형태의 배치 및 구도	
②		콘텐츠 국제+외교+정치, JFK 공항 세관 밀수실
	표현방식 디지털 이미지, 무보정	
	표현특성 낯선 피사체의 다양한 디테일과 색감을 정물화처럼 세밀하게 표현	
③		콘텐츠 정치+외교+예술, 미국중앙정보국 로비 미술품
	표현방식 디지털 이미지, 무보정	
	표현특성 일반이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의 추상주의 미술품을 사실적 묘사	
④		콘텐츠 국제+과학+정치, 대서양 횡단 해저 케이블
	표현방식 디지털 이미지, 무보정	
	표현특성 단조롭고 중요하지 않은 모습으로 표현하여 붕괴된 아우라 표현	
⑤		콘텐츠 정치+과학+오락산업+윤리, 근친 교배된 하얀 호랑이
	표현방식 디지털 이미지, 무보정	
	표현특성 박제된 동물처럼 케이지에 갇힌 하얀 호랑이 묘사	
⑥		콘텐츠 과학+의학+경제+윤리, 냉동시체보존장치
	표현방식 디지털 이미지, 무보정	
	표현특성 하얀 무채색 차가운 냉동 보존장치를 사실적으로 표현	
⑦		콘텐츠 정치+경제+법, 양방향 거울 심의실
	표현방식 디지털 이미지, 무보정	
	표현특성 미니멀리즘한 구도, 면과 색상, 곡선 등으로 표현	

IV. 결론

본 연구는 사진 매체를 사용하여 정치와 예술과의 관계를 표현한 타린 사이먼의 「숨겨지고 낯선 미국의 지표」(2006) 중 일곱 개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정치, 경제, 과학, 의학, 윤리, 법, 국제, 외교 등의 주제를 분석하였다. 작가는 프로젝트를 통하여 일반에게 일상에서는 알지 못하는 숨겨진 정치적 의도와 비밀스러운 세계에 대한 자각과 자성을 일깨우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체렌코프 핵포드의 방사선 부지의 핵폐기물이 내뿜는 푸른빛의 아우라는 벤야민이 언급하였던 정치적 심미화로 인한 프로파간다이며 작가는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표현하였다. 미국 공항 내 소수의 관계자들만이 담당하는 은밀한 장소를 대중들이 접할 수 있도록 사진으로 복제하고 수용자들의 인식의 변화를 유도하였다. 과거 냉전 시대 예술에 대한 미국 중앙정보국의 활동은 미국인의 사고와 미학적 감수성을 대중화한 문화전쟁으로 표현된다. 대서양 횡단 해저 케이블은 단조롭고 중요하지 않은 모습으로 표현하여 아우라가 사라진 모습을 보인다. 비도덕적 행위로 학대당하고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동물을 작품화하여 관객에게 정치적으로 올바른 역할을 유도한다. 과학적 생명 연장 장치 또는 소송 컨설팅 서비스는 내부 네트워크를 통하여 운영되며 일반에게는 제공되지 않으며 일부 특권을 가진 계층에 비밀리에 제공된다. 작가는 이러한 비밀스러운 특권을 경계시키기 위하여 이 이미지로써 가시화하고 대중에게 유통함으로써 예술의 정치적 참여 기능을 확장시킨다.

이처럼 작가의 사진에서 나타나는 미국의 문화, 종교, 과학, 역사, 의학, 오락 등 일상적인 기능들의 숨겨진 정치적 아우라를 분석하였다. 역사는 정치이자 예술로 이어지는 유기체적 양상을 실제 미국의 사례로 확인하였으며 작가는 사진을 통하여 예술의 기능 전환을 보여준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의 긍정적 발전 방향을 제안하는 예술의 순기능적 역할을 제시하는 융합적 연구이다. 동시대의 사진예술의 방향은 다매체 간의 융합과 그로 인한 유기적 연결을 통해 지속해서 생성, 변형되는 새로운 시각적 표현방식과 소통 방식을 계속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벤야민이 언급한 미적 진보는 역사는 정치이자 예술로 이어지는 유기체이다. 이에 대입하여 사이먼의 사진은 예술을 정치적 방향으로 기능 전환하며 작품과 수용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관계를 확대하여 예술의 탈의식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

- [1] Aaron Swartz, 「Aaron Swartz & Taryn Simon in conversation」, Image Atlas: New Museum of Contemporary Art, Rhizome Seven on Seven Conference, 2012.
- [2] Ha, Euna, "A Study of Expression Tendency and Creativity of Auteurism Design", Korea Science & Art Forum Vol.30, pp.465-475, 2017.
- [3] Hagen Schulze, 「Germany: A New History」, Wisdom and Love, 2011.
- [4] Jay David Bolter, 「Remediation: Understanding new media」, Communication Books, 2006.
- [5] Jean Baudrillard, 「Simulacres et Simulation」, Minumsa, 2001.
- [6] Jeon, Su-Kyung, Park, Yun-Mi, "The psychological contemplation of subconsciousness in self-portraits by Cindy Sherman From the perspective of Jung's analytical psychology", Korea Science & Art Forum Vol.8, pp.1-12, 2011.
- [7] Kang, Sumi, 「Art in the Technological Age: An Essay on the Materialistic Aesthetics in Walter Benjamin's Thinking」, Hong-ik University, 2007.
- [8] Kim, Sung Woon, "An Extensive Study of Interactions and Converging Concepts between Science and Paintings Based on Works of Classicism, Impressionism, Cubism", Korea Science & Art Forum, Vol.24, pp.67-77, 2016.
- [9] Kwon, Ha Jin, "Performativity in Convergence of Identities Expressed in Nikki S. Lee's Performance Photography", Korea Science & Art Forum Vol.35, pp.15-27, 2019.
- [10] Lee, Seung Hoon, 「Consumption of art and image in age of digital mechanical reproduction」, Hong-ik University, 2016.
- [11] Lim, Yoon Soo, "A Study on Digital Photography as an Expanded Type of Painting focusing on the paradigm of photography and painting", Korea Science & Art Forum Vol.35, pp.411-420, 2018.
- [12] Park, Jung Gu, 「Rescue of Aura Experience in Benjamin Philosophy」, Chunnam University, 2013.
- [13] Rushdie, Salman, 「Foreword: An American Index of the Hidden and Unfamiliar」, 2007.
- [14] Sim He Ryun, "Die gegenwartige Bedeutung der asthetischen Uberlegungen uber die Massenmedien von Walter Benjamin", The Korean Journal of Aesthetics, 30, pp.169-209, 2001.
- [16] Walter Benjamin, 「Das Kunstwerk im Zeitalter

seiner technischen Reproduzierbarkeit, Kleine Geschichte der Photographie」, Gil, 2007.

[17] <http://tarynsimon.com> (2019.09.01)

[18] <http://wikipedia.org> (2019.09.01)

[19] <http://ted.com> (2019.09.02)

Endnote

- 1) 장 보드리야르, 하태환 역, 「시뮬라시옹」, 민음사, p.16, 1992.
- 2) 어떤 예술작품이나 물건에서 느껴지는 분위기, 모방할 수 없는 기운, 원작을 감싸고 있는 유일무이한 고유 의 특성 혹은 미적 아름다움. 재생산이나 복제할 수 없는 '원본성', 또한 진품과 복제품은 구별되며 그 의미가 달라지는 '진품성', 똑같은 것을 다시 그린다고 해도 전작과 똑같지 않은 '일회성'을 전통 예술의 가치 척도로 보았다.
- 3) 제이 데이비드 볼터, 이재현 역, 「재매개: 뉴미디어의 계보학」, 커뮤니케이션 북스, p.88, 2006.
- 4) 발터 벤야민,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제2판)」, 발터 벤야민 선집 2, 최성만 옮김, 길, p.357, 2010.
- 5) 우리가 보고 있었지만 그를 감지하고 의식하지 못함으로써 사실상 우리에게 보이지 않던 대상 혹은 현상들을 벤야민은 정신분석학의 용어를 빌려 시각적 무의식이라고 한다.
- 6) 발터 벤야민,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제2판)」, 발터 벤야민 선집 2, 최성만 옮김, 길, p.84, 2010.
- 7) 제 1, 2, 3판과 프랑스어 번역본을 합해 총 4가지 버전 중, 1935년 제1판이, 두 달 후에 제2판을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1936년 2월에 완성된다. 제2판은 가장 포괄적 버전이며 핵심 개념들이 가장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있다.
- 8) 발터 벤야민,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제2판)」, 발터 벤야민 선집 2, 최성만 옮김, 길, p.93, 2010.
- 9) *ibid.* p.382
- 10) *ibid.* p.96
- 11) *ibid.* p.50
- 12) *ibid.* p.69
- 13) *ibid.* pp.41-58
- 14) (인간 시체의) 냉동보존술, 냉동 가사(假死) 상태의 사람을 다시 소생시키는 기술에 관한 학문.